

가족 가치에 대한 재고(再考)

Rethinking of The Family Value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 수 서 선 희*

Gwangju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Welfare

Professor: Sun-Hee Suh

〈목 차〉

- | | |
|---------------------------|---------------------------|
| I. 서론 | IV. 평등 가족을 넘어서: 생명 가족을 향해 |
| II. 가족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옹호적 견해 | V. 결론 |
| III. 대안으로서 평등가족 | 참고문헌 |

〈Abstract〉

Rethinking the Value of Family

This study compares and contrasts positive and negative viewpoints concerning the family. Currently, a resurgence in positive viewpoints has exposed the untruths and myths put forth concerning the family on the part of those with a more pessimistic viewpoint. However, those with negative viewpoints still have not acknowledged that the family is an important part of human lives.

In this study, the “equal family” (a family where tasks are split evenly among, say, the mother and father with regard to both vocation and household tasks) is criticized as an alternative to the “unfair family”, as the “equal family” structure fails to go beyond the liberaliz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to create a virtuous structure worthy of emulation by the children in the family. This is tru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equal family” structure has done much to improve individual freedom in the lives of its memb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osits a third family structure, the “life family,” as a new alternative to the other two models. The “life family” recognizes the family’s central role: as a safe haven for raising children and building human esteem through close long-term relationships.

* 주저자, 교신저자: 서선희 (sunhee@gwangju.ac.kr)

Key Words : 가족옹호적 관점(positive viewpoints of the family), 가족비판적 관점(negative viewpoints of the family), 페미니즘과 가족(feminism and the family), 평등가족(equal family), 생명가족(life family)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왔다. 대략적으로 볼 때, 1970년대까지는 한국 가족의 특성과 변화(김두현, 1968; 이효재, 1971; 최재석, 1966, 1983; 이광규, 1975)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는 권력구조(고황경, 이만갑, 이효재, 이해영, 1963; 이광규, 1975; 최재석, 1982; 이효재, 1971)와 같은 가족 내부적 특성들이 주로 연구되어 오다가, 1980년대 무렵부터는 한국 가족의 반사회적 또는 가부장적 양상과 같은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이전의 연구가 현재의 한국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가치 판단적 성향은 약했던 것에 비해 1980년대부터의 연구는 가족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판단하는 가치 지향적 성향이 두드러졌다.

1980년대 들어 가족 연구에 가치 판단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가족연구에 페미니즘이 도입된 영향이 크다. 여성 억압과 차별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그것의 주요 조건임을 알게 되었고, 가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의 기제를 밝히고자 가족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의 여러 측면, 예를 들어 성, 가사노동, 모성, 가정성, 가족과 경제의 결탁 등이 연구의 주제로 끌어 올려져 분석되었고,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의 심층이 드러났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연구들은 가족이 억압과 차별을 가져오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을 알게 했고, 가족은 선(善)하다는 일반의 인식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의 연

구는 가족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어 가족연구에 전환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성차별의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가족에 있었고, 그랬던 것만큼 가족에 대한 연구도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되었다. 가족이 성차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의 가족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경향을 띠었다. 그들에게 가족은 억압과 차별을 지지하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였으며, 폐기되어야 하거나 수상한 눈초리를 거둘수 없는 제도였다. 페미니스트들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성차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족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 시각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들의 시각이 “가족을 침식”(린다 고든, 1991: 71)해 왔다는 면을 부정할 수 없다. 과연 가족이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의 차원에서 가족을 가늠하는 논의가 주로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슈화되고 논의되다보니 가족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서 정리되어 왔다.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가치의 문제는 상당히 비판적, 부정적 시각에서 정리되어 왔고, 옹호적이며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이론적 정리는 많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가족비판론에 대비하여 가족옹호적 입장에서 가족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였던 질문, 즉 과연 가족이 인간에게 이로운가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또 다른 시도이며, 더 나아가 가족이 과연 인간에게 역기능적인가? 또는 비정의적 이기만 한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

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가족에 대한 반격에서 시작되었고, 가족 옹호론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에서 시작되었다(이미경, 1999: 11)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옹호적 가족 연구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비판적 입장과 가족옹호적 입장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사회에 따라 달라서 확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친가족 운동이 명백하게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강했지만,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했던 유럽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더 강하다(이미경, 1999: 12)¹⁾. 본 논문이 가족옹호론의 견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페미니즘을 반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여성의 화해를 찾기 위한 하나의 시도를 하고자 함에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가족에 대한 비판과 폐기 주장이 계속 있어왔고 가족 또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해 왔지만 여전히 가족은 지배적인 삶의 형태를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Barrie Thorne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배리 쏘온, 1991: 31) 그러한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서 가족에 대한 기대 또한 버리지 않고 있다.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오늘날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욕구이다. 보살핌의 기능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 추구와 충돌하는 면이 있어, 이 두 가지의 가치, 즉 보살핌과 자유 및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억압

과 차별의 차원에서만이 아닌 새로운 차원, 즉 사랑과 배려 차원에서의 여성과 가족의 갈등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보살피 주고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더 나아가 그러한 욕구를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가족과 어떻게 공존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가족옹호적 입장에서 보는 가족 가치를 정리하는 작업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정치적 쟁점으로 대두하였다. 출산율 저하와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실제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이래로 사회복지 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가족이 차지해 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에 대한 관심이 정치적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족에 대한 옹호적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가족비판적 견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책 시행의 실제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가족비판적 견해에 대한 가족옹호적 견해를 비교 분석해 보고,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에 대한 대안 가족으로 제시되고 있는 평등 가족이 과연 대안가족으로 만족스러운가를 살펴 본 뒤, 결론으로 새로운 가족 대안의 방향을 제언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1) 1990년대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친가족 운동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이’라는 모델로 가족을 전환시켜서 가족가치(family value)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높은 이혼율, 한부모 가족의 증가, 독신자의 증가, 기혼 여성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취업 증가 등을 우려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며, 평등권 수정안, 낙태법, 동성연애권 등에 대한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의 친가족 운동론자들은 페미니스트들이 가족을 비판하고 심지어 파괴하려 한다고 보고 반페미니즘적 성향이 강하지만, 유럽의 친가족 운동론자들은 “가족의 위기”를 페미니즘에서 찾기보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더 많이 찾는다.

II. 가족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옹호적 견해

본 논문에서 가족옹호적 입장은 인간, 가족, 사회와의 관계가 기능적이라고 보는 시각을, 가족비판적 입장은 인간, 가족, 사회와의 관계를 역기능적이라고 보는 시각을 일컫는다.

가족에 대한 비판은 고대의 Platon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국가 형성과 유지에 가족이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고 공화국의 건설을 위해 가족의 폐기를 주장하였다(이효재, 1988: 11). 이러한 플라톤적 전통은 19세기의 유평피아적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대두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가족의 말살이나 급격한 변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Marx와 Engels는 가족을 부르주아 제도의 표상이라고 보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 폐기되어야 할 그리고 되어질 제도로 생각하였다. Fourier, Saint-Simon, Owen과 같은 사회주의자들도 결혼과 가족을 역사 발전에 부적합하고 위대한 제도로 여겼으며, Hegel을 위시한 정치 사상가들도 시민적 국가 건설에 부적합한 제도로 보았다. 그러나 가족 비판론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은 196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으로부터 나온다. 법적 또는 고용상의 불평등을 문제 삼는 보수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을 제외한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성차별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가족은 변화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인간발달에 가족이 끼치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면들이 세세하게 드러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졌다.

반면 가족 존속을 주장하거나 사회와 가족 간의 기능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족옹호적 입장은 20세기 초반 인류학자들(Malinowski, Morgan, Murdock)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인류학적 추론이나 답사를 통해 가족은 모든 사회의 보편

적 제도로 존재해 왔다고 결론짓고, 그같은 가족 보편설에 의지하여 가족은 필수적 사회 제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초기 견해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조 기능론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정교화된다. 구조기능론자들은 그동안 분산되어 오던 가족에 대한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시각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폐기나 변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가족 비판론으로, 가족의 존속이나 유지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족옹호론으로 묶어, 전자의 경우는 페미니즘을 후자의 경우는 구조 기능론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자의 입장을 대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페미니스트들의 가족 비판의 쟁점을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몇 가지 주제로 요약한 후, 요약된 주제들에 대한 가족옹호론자들의 견해를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비판론자가 제기하고 있는 가족의 문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문헌고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는 매우 방대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스트들의 가족 연구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았거나 가족이 직접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문헌들에 한정하였는데, 그러한 문헌들에는 이효재(1988), 배리소온(1991), 소콜로프(1990), Epstein(1981), Firestone(1970), Mitchell(1971), Sargent(1981), Zaresky(1976) 등의 연구들이 포함된다. 문헌 고찰을 통해 가족비판적 입장에서 가족을 비판하는 근거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보편적 제도로서의 (핵)가족,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서의 가족, 애정 공동체로서의 가족 신화가 그것들이다. 이제 가지의 측면에 대한 가족 비판론과 가족 옹호론의 입장을 대비하여 양측의 입장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1. 보편적 제도로서의 가족

가족 옹호론자들에게 가족은 보편적 제도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사회에는 가족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가족이 사회의 존속을 위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가족이 보편적 제도임을 확신한 최초의 인류학자 Malinowski는 “인간의 아이는 가장 고등한 유인원의 새끼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짝짓기, 임신, 출산과 같은 재생산 행위가 법을 기초로 한 부모됨과 연결되지 않는 문화란 존재할 수 없었다”(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41 재인용)라고 하여,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인간의 조건 때문에 가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하게 되는 보편적인 제도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Murdock(1949)은 250개 사회에 관한 문헌을 연구한 결과 모든 사회에 가족이 존재하고 있었고, 가족이 네 가지의 기능, 즉 성적 기능, 경제적인 기능, 재생산,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제도가 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초기 가족 보편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 기능론자들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이론화된다. 구조 기능론자들(Parsons & Bales, 1955; Goode, 1963)은 가족이 사회의 유지·존속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필수요건의 하나인 아동의 사회화와 성인의 인성(personality)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사회에 필수적 제도이며, 그런 이유로 가족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족의 기능이 여타의 다른 제도나 조직에 의해 대체되면서 과연 현대 사회에서도 가족이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때, Goode (1963)는 산업 사회와 핵가족의 ‘기능적 적합

성’으로 인해 산업사회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제도로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가족옹호론자들은 가족이 보편적 제도로 존재해 온 이유를 가족이 사회에 대하여 수행하는 기능에서 찾는다. 즉 가족 옹호론자에게 가족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족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 제도일 수밖에 없다. 가족이 수행하는 필수적 기능으로 초기 학자들은 출산과 양육을, 후기 학자들은 사회화를 들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구조 기능론자들의 사회화 기능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초기학자들이나 후기 학자들 모두가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족의 핵심기능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족원의 생산과 양육이 가족의 핵심 기능이며 그 이유로 인해 가족은 인간 사회의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제도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이 가족 옹호론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가족비판론자들은 1) 보편적 제도로서 가족, 특히 핵가족은 사실이 아니며, 2) 재생산 기능으로서 가족의 보편설을 주장하는 것은 가족을 생물학적 단위로 설명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가족 옹호론자들의 견해를 비판한다.

1) 핵가족의 사실성

가족 비판론자들은 가족옹호론자들이 보편적 가족으로 제시하는 가족이 핵가족이라는 점을 들어 보편적 제도로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비판론자들이 지적하듯이 가족옹호론자들이 보편적 제도로서 지칭하는 가족은 핵가족이다. 머독은 “가족은 공동거주, 경제협력, 그리고 출산의 기능을 하는 한 사회집단이다. 이 집단은 양성(兩性)의 성인들을 포함하는데 최소한 그들 중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용납

되는 성관계를 유지하며, 그리고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친자녀 또는 입양에 의한 자녀들을 포함한다”(Murdock, 1949: 1)라고 말해 그가 말하는 보편적 가족이 핵가족임을 보이고 있다. Malinowski 역시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보편적 형태의 가족으로 간주한다. 핵가족을 보편적 가족으로 보는 입장은 1960년대의 구조 기능론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서 부부가 중심이 되어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단위를 이루는 핵가족을 보편적 형태의 가족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족비판론자들은 핵가족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족은 어떤 한 형태가 통시적으로 존재할 만큼 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핵가족이라는 한 형태의 가족이 모든 사회에 존재해온 보편적 가족 형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intz 와 Kellog(1988)는 역사적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가족은 17세기의 신성가족, 18-19세기의 민주적 가족 또는 빅토리아적 가족,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인디언 가족, 흑인가족, 농장 가족, 노동자가족이 있었고, 핵가족은 20세기에 들어서 와서 나타난 가족이었음을 제시하며, 가족은 시대·지역·계급·인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고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Coontz (1992)는 핵가족은 20세기의 가족이지만 핵가족마저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어서 이 시대에서조차 보편적 가족형태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핵가족 보편설은 부적합하다고 비판 받아왔다(장현섭, 1993; 이미경, 1999). 한국 사회에서 핵가족은 1970년대 무렵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지만 그것은 형태적으로만 그러 할 뿐 실제로는 “복수의 핵가족 조합으로서 종법(宗法)의 원리에 따른 장자 위주의 직계 가족

의 원리가 지배적”(장현섭, 1993)이었고, 따라서 보편적 형태로서 핵가족은 한국 사회에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비판론자들은 역사적·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핵가족은 인간 역사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가족이 아니라 근대 사회 출현과 더불어 나타난 근대 사회의 가족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결론짓는다. 핵가족 보편설은 한마디로 가족생활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족비판론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핵가족이 역사적으로 보편적 가족 형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한 것은 가족 이론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공헌이다. 그들의 연구를 통해 가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도이며,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고, 따라서 핵가족을 가족의 보편적 형태로 인식하는 가족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낸 공헌에도 불구하고 비판론자들은 핵가족 보편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에서 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은 항상 존재했었다는 사실까지도 부인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대체로 자녀의 생산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남자는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된다. 이는 결혼하여 자녀를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핵의 존재는 의도적으로 고안된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핵가족’은 항상 존재하지 않았을지라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은 항상 있었다. 다만 그 핵이 가족으로서의 경계가 얼마나 분명한 것이었는지, 핵 구성원끼리의 가족생활이 외부의 생활과 얼마만큼 독립적이었는지, 가족과 사회가 얼마나 분리되었는지 등등 가족생활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러

므로 모든 사회에 핵가족만이 존재해 온 것은 아니지만,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핵’은 결혼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자연적 현상이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부부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핵이 결혼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자연적 결과의 하나임은 핵이 가족 구성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과 되어진, 개인 선택 그 이상의 것이다. 가족 비판론자들의 핵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가족의 핵까지도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이며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임의적 구성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의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핵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에 있다. 핵가족의 내부의 역학 관계나 핵가족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된 역기능은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가족 구성에서 핵자체가 갖는 가족 구성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는 핵이 자연적 결과물로 존재하게 되어, 핵은 가족 구성의 핵심이다.

2) 재생산 제도로서의 가족

가족옹호론자에게 가족은 재생산의 기능, 즉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성인 노동자의 재충전의 기능 때문에 모든 사회에 보편적이다. 그들에게 가족은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생물학적 단위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라는 점에 반대한다. 그들에게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은 생물학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다. 가족 비판론자들은 출산이나 양육 그리고 성인 노동자의 재충전과 같은 현상은 사회의 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 문화적 현상인데도, 그것을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식하여 그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문화성을 인지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재생산 기능의 사회문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재생산 기능이 내포하고 있는 성차별의 역할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가족의 재생산 기능은 미화된 ‘모성’ 개념을 만들어내거나(Thurer, 1994; Chodorow, 1978;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1999) ‘가정성’(domesticity)을 찬양하는(Thurer, 1994; Epstein, 1981) 문화를 만들어 냈고, 그러한 문화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도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을 생물학적 현상으로만 인식하면 거기에 숨어있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밝혀 낼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노동력 재생산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현상이며, 가족옹호론자들은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재생산 제도로서의 가족에 대한 비판은 현존하는 기능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의 필수성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구조기능론 일반에 대한 비판에서도 제기된다. 구조기능론은 어떤 제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성을 그것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들어 설명한다. 사회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능적 필수요건이 있고 어떤 제도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면 그 제도는 사회에 필수적 제도임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가족 옹호론자들은 가족은 자녀 출산과 사회화라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 왔고 그런 기능 수행으로 인해 가족은 모든 사회에 보편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구조기능론적 설명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한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능론자들이 주장

하듯이 만약 그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든가 혹은 그 기능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임을 반드시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정한 기능 수행은 다른 제도에 의해 대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곧 그 제도의 필수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가족의 재생산 기능 수행이 곧 가족의 필수성을 의미할 수는 없고, 따라서 재생산의 기능에 기반하여 가족의 보편설을 설명하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한 것처럼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이 여성에게 성차별을 가져오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가족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물학적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문화적 내지는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 제도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도 타당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양육되며 성인으로 자라는 곳으로서의 가족이 사회문화적 현상임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가족옹호론자들이 노동력 재생산을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접근하므로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여성 차별적 측면을 놓치고 있음이 사실이지만, 가족비판론자들 역시 가족의 사회문화적 측면에만 집중하여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라는 것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재생산 기능을 한다는 점을 회피하거나 그 사실로 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가족은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녀가 출생하고 성장하는 생물학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이 같은 사실은 얼마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주된 사실로 존재할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이지만 Firestone (1970)은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녀는 가족이란 남성, 여성, 어린이이

로 구성된 재생산의 단위이며, 그러한 가족생활은 원시시대를 비롯하여 최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여성운동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임을 인정하고 있다(Firestone, 1970: 149). Barrie Thorne도 “가족은 출생, 질병, 죽음과 같은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가족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먹고 자는 장소이며 친족 관계라는 생물학적 유대로 친밀한 형태의 관계가 맺어지는 장소이다. 가족생활의 리듬은 시간이 지배하는 작업장의 리듬과는 달리 신체적 요구와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조직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보통 가족의 핵심적 활동”(배리쏘온, 1991: 13)이라고 하여 가족의 생물학적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Zaretsky(1976)의 가족에 대한 역사적 분석 또한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는 전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생산과 더불어 보호와 부양이 이루어지는 재생산의 단위였고, 가족과 경제가 분리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재생산의 단위가 가족이라고 하여 가족이 생물학적 단위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이렇듯 여러 이론들과 비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족은 재생산을 주 기능으로 하는 생물학적 단위라는 점은 가족의 기본적 사실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듯이 가족의 생물학적 기능이 가정성과 모성의 강조, 성별 노동 분업, 사회적 성의 분리를 가져와 성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가족이 생물학적 제도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족 옹호론자들의 가족 보편설은 핵가족 보편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가족의 사회문화성

을 부인하는 일방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 옹호론자들은 가족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회 문화적 단위이기도 하지만, 가족은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 양육이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단위이기도 하다.

2. 정의롭지 못한 가족

가족 비판론자들은 가족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가족은 계층적 불평등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상속과 결혼을 통해 계급 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가족이며,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가족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Marx & Engels, 1968). 자유주의적인 Blau와 Duncan (1967)도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아버지의 교육과 직업이 자식의 계층 결정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밝혀 가족이 계층 형성에 결정적임을 입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비정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Hegel에 의하면 가족 중심의 결사체는 시민 사회의 형성을 방해하고 국가와 가족 간의 경쟁과 대립을 조장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반사회적이고 이기적 문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중심적인 사회고, 그러한 전통이 근대 이후에도 구성원의 충성과 에너지가 가족 단위에만 집중됨으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하거나(장경섭, 2009; 이재경, 1994; 이미경, 1999) 시민 사회의 형성을 방해해 왔다(이득재, 2001)고 지적되고 있다.

가족을 계급 불평등의 기제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성차별에 무관심한(sex-blinded) 사람들로 비판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차별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가족은 여성=가사담당자,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성별역할 분업을 통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가족 내에만 한정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은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무가치한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무보수 노동이 되어(Zaretsky, 1976) 여성은 설 사이 없이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지 못한다. 더 나아가 가족 내 성별역할 분업은 이데올로기화하여 여성이 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모든 여성이 노동자가 아니라 가정주부로 대우받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Sokoloff, 1980). 이처럼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족은 남녀 불평등의 주요 장일뿐만 아니라 ‘익숙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비정의적 제도이다.

정의(正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가족비판론자들의 비판을 통해 일반적 기대는 달리 가족이 선(善)한 제도가 아니라 악한 제도, 즉 비정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었다. 가족비판론자들의 연구를 통해 가족이 계층 형성, 시민 사회의 건설, 성평등의 달성에 비정의적임이 밝혀질 수 있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이 가족 내 여성 억압의 결과임을 입증하여 기존의 가족이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가족은 과연 비정의적 이기만 한가이다. 가족이 인간 사회에 갖는 정의적 측면 또는 미덕(virtue)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먼저 답해져야 할 것이다.

근대 사회의 부상 이래로 정의는 분배나 권리의 차원에서 주로 설명되어 왔다.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차별 없이 보장되고 있는가 또는 행복의 추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향

유되고 있는가가 정의를 개념 짓는 조건들이었다. 그러나 Sandel(2009)은 정의를 그렇게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이거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정의는 선택이나 양적 계산의 문제가 되어버린다고 비판한다. 그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Sandel, 2009: 361).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Sandel, 2009: 308). 정의는 공리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andel, 2009).

여기서 Sandel이 말하는 미덕이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McIntyre나 Aristotle의 견해에 동의하여 인간을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 보기보다는 “서사적 존재”로서 이해한다. 즉,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다”(McIntyre, 1981: 201. Sandel, 2009: 311 재인용).

서사적 존재, 즉 관계적 존재로서의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으며”(Sandel, 2009: 311), 그래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Sandel, 2009: 311). 서사적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자기 이해를 뛰어 넘어 다른 사람의 이해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의가 설 수 있게 된다.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 정체성이 확립될 때, 인간의 역

사를 통해 오랫동안 칭송되어온 미덕들 - 예를 들어 관용, 헌신, 배려 등 -이 정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 사고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 같은 미덕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는 “도덕의 출발점”(Sandel, 2009: 311)이며 정의의 개념이 완성될 수 있다.

정의는 미덕을 포함하여야 하고 미덕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Sandel의 정의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가족은 정의롭다. 가족은 인간을 관계 안에 놓는다. 이는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세 종류의 관계(군신, 부부, 부자관계) 중에서 두 종류의 관계(부부, 부자 관계)를 가족 관계에서 찾는 유교의 원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정체감은 부모자녀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아동학이나 심리학의 기본 사실이 ‘관계’로서의 가족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어릴 때 부모와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했는지,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대감이나 동일시 등의 감정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따라서 한 개인의 건강한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이들은 관계 안에서 처음으로 배려, 사랑, 인정, 관용 등을 배우며, 이러한 가치들을 통해 아이들은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한다. 가족은 인간을 관계 안에 놓으며,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인간답게 하는 훈련과 학습을 하게 된다. 가족은 사람들을 관계 안에 위치시키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사람들은 미덕을 학습해 나가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족은 미덕이며 정의롭다. 페미니스트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의 가족은 성인(여성)의 입장에서만 검토되고 있다. 가족 논의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성인의 입장에서 아동의 상황이

접근된다. 가족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최적합의 장소라는 것이 아동학의 보편적 사실이다. 아동 양육과 보호라는 임무가 중국에는 성차별을 유발시킨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가부장적(sex-blinded) 시각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 발달에 가족이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무시하는 시각도 부분적이다. “가족생활은 아이들에게 안정감,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그에 상응하여 자신에게 일관성, 정직, 믿음을 습득하게 되는 곳이며”(Ross, 1994: 211), 그렇게 볼 때 “인간의 아이는 가장 고등한 유인원의 새끼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리노브스키의 주장(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41 재인용)은 적어도 아동에 관해서는 적합하다.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정의롭다.

정리하자면, 정의의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가족은 성차별의 측면과 시민 사회적 덕목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이 사실이지만,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위치시키며 그로부터 파생되는 도덕적 훈련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성장에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것도 사실이며, 그러한 점에서 가족은 정의롭고 미덕을 가지고 있다.

3. 애정 공동체로서의 가족 신화

대중적으로 가족이란 사랑의 공동체로 인식되어 왔다. Malinowski는 가족이란 “특정 공간(‘가정’)에서 지내며 특정한 애정적 유대(‘사랑’)를 가지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44, 재인용)으로 규정하여 사랑 공동체로서의 가족 제도의 일반적 인식을 지지하였다. Parson(1949)도 가족을 사회와 대비되는 곳으로 보고 자녀와 성인 노동자의 사회화를 위

한 “표출적” 제도로 이해한다. 애정 공동체로서 가족을 보기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Engels는 현대 가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 가족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도덕적·낭만적 절정에 이르렀다”(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45)고 말하여 가족을 애정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족 비판론자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애정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강조는 신화일 뿐이라고 대응한다. 가족을 애정적 단위로 보는 인식은 근대사회의 산물이며 근대 사회에서 애정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인식은 사실이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노동을 팔고 거래의 계약관계를 타협하는 시장 내에서 살게 되는데 경쟁적·일시적·임시적 관계의 시장 상황에 대비해 바깥 사회의 침입으로부터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로서 가족이 기대된다는 것이다(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 1991: 51). 냉엄한 이익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 애정적인 안식처로서의 가족은 실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생겨난 상징이거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설명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가족 학대를 예로 들어 애정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허구라는 점을 증명한다. 서구 가족사(Aries, 1962; Stone, 1977)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발생해온 공통적인 현상이다. 아내 학대 외에도 아동학대와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가족이며, 이 같은 가족원간의 학대는 가족이 애정 공동체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은 애정 공동체로서

의 가족 인식은 가족성원들 간의 이해의 통일을 가정하는 남성 중심적 사고의 반영이라고 비판한다. 가족은 “생산과 재분배가 일어나는”(하트만, 1988: 160) 장소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 사람들 간에 종종 갈등이 일어나는”(하트만, 1988: 161) 장이다. 그래서 가족은 전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라도 애정에 의해 형성된 단위로 이해될 수 없으며 권력의 분배가 일어나는 장이며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갈등의 장이다. 그럼에도 가족을 애정으로 뭉쳐진 공동체로 보는 시각은 통일된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의 모습을 강조하고 가족성원들 내부의 갈등과 이해의 차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하트만, 1988: 160),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배버린 남성중심의 사고방식만을 반영한 설명이다.

이러한 가족 비판론자들의 분석은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 뒤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의 “위선”을 드러나게 하고 가족에 대한 “도덕적 수사주의”(이미경, 1999: 34)를 벗어나게 했다. 가족이 화합과 조화의 장소만이 아니라 갈등과 반목의 장소이기도 함을 밝혀 가족이 선(善)한 곳만이 아닌 악(惡)한 곳이기도 함을 알게 한 것은 가족 비판론자들의 공헌이다.

그러나 가족을 애정적 공동체로만 보는 것이 문제인 것과 꼭 같이 가족의 애정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족원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적인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 유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족원들에게 비열하기만 하거나 한결같이 애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조나 동세대인들이 ... 홀륭함과 비열함, 관대함과 응졸함을 모두 지

니고 있었다는 점이다”(배리 쏘온, 1991: 31). 그들은 “복합적 동기”(배리 쏘온, 1991: 31)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가족원은 서로를 이기적 목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타적 목적으로도 바라본다. 가족에 억압적 측면이 있다면 동시에 애정적인 측면도 있다. 가족은 정신질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는 애정적 보살핌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치료를 위한 원천이며 예방책”(배리 쏘온, 1991: 31)이다. 그래서 린다 고든(1991)이 지적하였듯이 “우리는 확실히 현대 가족의 억압적 차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것에 대항하여 투쟁해야”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 공동체의 보다 큰 비전의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그 지지적 가능성 또한 인정해야”(배리 쏘온, 1991: 32, 재인용)한다. 이렇게 볼 때 애정적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신화로만 볼 수 없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애정적 공동체인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가족옹호론의 견해를 가족비판론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가족 옹호론자들의 가족 이해가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핵가족 보편설), 현실을 미화하며(애정적 공동체로서의 가족), 비정의적인(차별과 차등을 가져오는 가족) 제도라는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를 인지하는 정도에서 볼 때 가족 옹호론자들의 견해, 즉 가족은 재생산의 기본 장소, 정의로운 제도, 애정적 공동체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가족에 문제가 있지만, 가족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의 존속과 계승은 정의로운 사회와 인간성(humanity) 구현에 이롭다. 따라서 반복해서 후퇴를 거듭할지라도 가족을 버리기보다는 “기위 수선해 보려는”(백 & 백-계른샤임, 1999: 83) 쪽으로 노력의 방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I. 대안으로서 평등가족

가족옹호론자들의 주장처럼 가족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가족이 가족비판론자들의 비판이 보이듯이 가부장적 가족이나 핵가족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떤 가족이 대안이 되어야 하는가. 핵가족이나 가부장적 전통 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러 형태의 가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18세기와 19세기의 유토피아적 공동 가족, 민주적이고 성역할 구분이 없는 레즈비언 가족, 결혼과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운 독신의 삶,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것에 개의치 않는 연속적 일부일체제 등등이 그러하다.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 중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평등가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평등가족은 “전 세계의 모든 대도시에서 다양한 언어로 공연되고 있다”(백-게른샤임, 2000: 25).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등가족은 가족 및 여성 및 가족 교육의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평등가족은 민주화된 가족관계, 즉 “인격적 성장, 가사의 분담, 성역할의 수정, 평등한 의사결정 등 상호존중과 협동하는 관계”(한국여성개발원, 1991: 35)가 실현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성인 남자가 절대적 권리와 선택권을 가진 가부장적 가족이 인류의 가족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한 가족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가족의 대안으로서 남녀의 역할과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는 평등 가족은 가족사나 여성사에서 획기적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안 가족으로서 평등가족에 대한 의 심도 제기되고 있다. 백 & 백-게른샤임(2000)은 평등가족이 과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백 & 백-게른샤임, 2000: 27)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평등가족이 실현되면 “과연 모든 개인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

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백 & 백-게른샤임, 2000: 27)라고 질문을 더하여 대안 가족으로서 평등 가족에 대한 회의를 내 보이고 있다. 배리 쏘온(1991)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가족을 검토하고 평등 가족과 가족에 기초한 애정적 보살핌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하여 평등 가족이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함을 시사 하였다. 가족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도정”(배리 쏘온, 1991: 31)에 꼭 필요한 시도라고 본다면 평등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등 가족은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자유주의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행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며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가 약속한 것만 지키면 된다”(샌델, 2009: 300). 자유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만, 타인이 이익을 얻도록 행동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샌델, 2009: 300). 자유주의에서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 내 책임은 내가 떠맡은 일에 한정된다”(샌델, 2009: 300). 자유주의적이고 공리적인 자아는 “내가 정하지 않은 도덕적 요구를 받아들여 거나”(샌델, 2009: 305) “부담을 감수하는 자아”(샌델, 2009: 305)가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유주의를 따르는 평등 가족도 마찬가지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이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그러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면, 남편(아내)으로서 상대방에게 부당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의무 외에는 다른 의무를 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 미경(이미경, 1999: 22)이 말한 대로 일단

자유주의의 행로에 들어서면 “자유는 점차로 의존하지 않는 것, 타인에 대하여 제약받지 않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집약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추구는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와 남편은 독립적 존재 그 이상을 넘어서는 관계로 들어가기 어렵지 않다. 가족생활은 내가 평등과 자유라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시에 나의 권리 역시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정지하여 상대방이 나의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 상황을 용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등 가족을 통해 자유와 평등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함께 추구한다. 자유롭고 평등하면서도 배려와 감정이입, 부드러움, 개방성 등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관계”(백-게른스하임, 2000: 207)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백-게른스하임(2000: 19)이 말하는 독일의 “의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의식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어머니”는 배우자와 관계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여성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아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 몇 년 전부터 독일의 여성 운동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신의 육체에 대한 자결권이란 것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의미했다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라는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된다(백-게른스하임, 2000: 13). 이런 변화는 “...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개인화되고 철저히 합리화된 서구사회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백-게른스하임, 2000: 19)을 시사한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들이 다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내용과

의미, 친밀함과 따뜻함, 뿌리내림과 친숙함을 약속해주는 대항세계”(백-게른스하임, 2000: 19)를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개인화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가족에서 평등과 자유를 추구할 때 친밀감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평등가족은 친밀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평등가족에서 가족관계는 평등과 자유의 기준에서 매번 검증을 받고, 검증의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은 모든 것을 가능한 조정해 가려고 시도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둘의 관계에 내재해 있던 부조화들을 드러내어 종종 관계 갈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이익의 충돌은 자주 관계의 종결로 전개된다. 평등과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개인적 자유의 충돌로부터 파생되는 부조화와 갈등을 감수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관계에서는 지속적이고도 심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다른 가치, 예를 들면 용서, 인내, 관용 등과 같은 가치들이 작용할 기반이 약하다. 그러므로 결과는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불가능한”(백 & 백-게른샤임, 1999: 23)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가능은 이전 세대들은 먼저 자유와 남녀평등을 달성하고 나면 “비로소 사랑이 그 모든 영광과 갈망, 욕망을 찬연히 꽃피우려고 생각했고, 그렇게 희망해왔기”(백 & 백-게른샤임, 1999: 42) 때문에 실망스러운 사실이다. 평등과 자유의 추구로 인해 한편으로는 즐겁고 가벼워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지럽고 두려워졌다(백 & 백-게른샤임, 1999: 23).

평등가족이 대안 가족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또 있다. 평등 가족의 관건인 자유와 평등이 정의로운 사회 기초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정의 개념 또는 자유주의적 정의 개념은 정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Sande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리주의적 이해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는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이고, 둘째는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 획일화하면서 그것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와 평등 차원에서 정의 개념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자유 이론은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고, 정의는 단순한 계산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에 기초한 이론들 사이에서도 ‘어떤’ 권리가 공리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중시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근본 권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가려내기 전에, 사람들의 기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적 삶에서 드러내는 취향과 욕구에 의문을 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의 도덕적 가치, 우리 삶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특성과 질은 하나같이 정의의 영역을 벗어난다.”(샌델, 2009: 361)

즉, 정의가 선택의 문제로 여겨지면 “자아는 목적에 앞서고 목적은 오직 자아에 의해 확정”(샌델, 2009: 305)되어 버리며 그렇게 되면 정의는 좋은 삶을 단정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유롭게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Sandel은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맞는 목적 또는 선의 적합성의 문제(샌델, 2009: 30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샌델 식의 견해를 따른다면, 자유와 평등이 관건인 평등 가족은 충분히 정의롭지 못하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

으로는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면서 이룩하고자 했던 처음의 목표, 즉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 선택의 자유는 공정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질적인 도덕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가 때로 불가능하다. 설령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한 규정이 아니기”(샌델, 2009: 308)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평등 가족이 가족의 대안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등가족은 가부장적 억압과 차별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의 개인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 주어 가부장적 가족이나 핵가족과 견주어 볼 때 가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 가족이 궁극적 가족 목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권리와 자유는 가능하게 되지만 그러한 가치만으로는 친밀감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충분히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 평등 가족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독립적 존재 확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과 인간의 속성들은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때문이다.

IV. 평등 가족을 넘어서: 생명 가족을 향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등 가족은 가족 대안으로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대안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평등 가족이 가족 대안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인간 사회에서 가족은 계속 필요하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이어야 하는가?

분명한 것은 대안적 가족은 이전과는 다른 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가

족이어야 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가족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백 & 백-게른샤임이 제시한대로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합”(백 & 백-게른샤임, 1999: 22)의 형태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가족”과 “현재의 가족”은 어떤 가족을 말하는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과거의 가족”은 가족옹호론자들의 가족이고, 그것은 개인들 간의 친밀감과 유대를 수립시키며 미덕으로서의 정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가족”은 가족비판론자들이 수립하고자 했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Barrie Thome의 주장처럼 새로운 가족의 탐색은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생취한 모든 것을 방어하는 한편 개인주의의 자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을 사랑과 평등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으로 초월하는”(배리 쏘온, 1991: 32) 방향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추상적 논의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토의들을 종합하여 자유와 평등 그 이상의 가치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가족에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보다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정체성의 회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독립적인 자유로운 존재로서 보는 생각은 J. Locke에서 시작되어 Kant에 이르고 현대에 와서는 J. Rawls에서 나타나는 근대 사회의 사유방식이다.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Sandel은 이런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존재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샌델, 2009: 300) 지적하면서 Aristotle, McIntyre 등을 통해 내려오는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를 제안한다. 21세기 사회의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리프킨(2000: 486)도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 “고정되고 독립적인 의식 대신 자신이

관계를 맺는 다양한 등장인물과 사건에 플롯과 내용이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 편의 이야기로서 자아를 파악하려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하다”(리프킨, 2000: 486)고 하여 미래 사회에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 정체성을 설정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을 관계적 존재로 인식하는 정체성의 확립은 친밀감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격체를 나누어 주는 것”(리프킨, 2000: 494)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때 사람은 자아에서 다른 사람으로 관심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며, 자유의지로서 경쟁에 반대되는 협동의 행동에 서게 되며, 법과 계약 대신에 희생과 배려, 전면적 지지와 같은 가치에 따르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타인과 결합하는(리프킨, 2000: 482)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수용”(자레스키, 1991: 284)하여 자기 내부에서 저울질의 갈등 없이 “타인들을 돌보아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자레스키, 1991: 284)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된다. 그럼으로써 해서 관계는 지속적이 되고 깊이 들어 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의 탐색은 가족은 재생산을 주 기능으로 하는 생물학적 단위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산이란 “인간 생명을 하루하루 유지하거나 다음 세대로 번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역사적·사회적·생물학적 부양에 관련된 모든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말한다”(Laslett & Brenner, 1989: 382-383). 또는 “그/그녀가 다음날 직무로 돌아오는 것이 보증되는” 활동(소콜로프, 1990: 125)이나 노동자가 스스로를 재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필수노동을 말한다(소콜로프, 1990: 179 재인용). 즉, 노동

력 재생산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성인 노동력의 재충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노동력 재생산으로서의 가족이란 새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길러내며, 성인 노동자가 생명력을 취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서의 가족 개념을 포괄한다.

종합하여 본다면 새로운 가족 대안은 생명의 생성과 양육, 관계적 존재로서의 정체감에 기초한 친밀감의 생성, 자유와 평등 외의 미덕들-배려, 관용, 인내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한 가족, 다시 말하자면 생명 가족을 새로운 가족의 대안으로서 탐색해 볼 수 있다.

V. 결론

가족비판론과 가족옹호론을 비교하여 검토하여 살펴보고, 그것의 결과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가족은 여전히 중요하다. 가족은 인간을 인간답게 함으로 인간생활에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다. 둘째, 가족은 핵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핵은 자연적 결과로 뒤따라오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산물이다. 셋째, 가족에는 미덕이 있다. 가족을 통해 관계적 존재라는 인간 정체성이 수립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져 온 여러 가치들이 실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성과 신화성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애정적 보살핌의 측면을 가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가족비판론자들은 가족의 비사실성, 폭력성, 성차별성, 신화성을 드러내어 가족은 선(善)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능적이라는 일반적인 견해가 남성 중심의 미화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알렸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포함한 가족비판적자

들은 이러한 공헌과 함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미덕을 간과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가족에 대한 이론적 낭만으로 흐르는 것”(장갑섭, 2009: 361)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족비판론자들의 공헌은 크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의사회에서도 가족은 여전히 중요하며, 미덕을 가지고 있고, 보살핌의 핵심이라는 가족옹호론자들의 견해는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가족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평등 가족은 가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하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평등과 자유를 넘어서는 인간관계와 미덕의 가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가족비판론과 가족옹호론을 종합하여 볼 때 생명을 위한 제도로서의 가족 개념을 새로운 가족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족이란 새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길러내며, 성인 노동자가 생명력을 취하게 되는 장이다.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 위에서 타인과의 연합에 비중을 두되 그것이 자유의지를 통해 일어나게 되어 친밀감과 유대가 중점이 되는 가족이다. 육체적 및 정신적 차원의 생명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 가족’을 가족의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헥경, 이만갑, 이효재, 이해영(1963). 한국 농촌가족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2) 김두현(1968).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3) 박숙자, 손승영, 조명덕, 조은 편역(1995). 가족과 성의 사회학. 사회비평.
- 4)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1999). 모성의 담론

- 과 현실. 나남 출판사.
- 5) 이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 6) _____(1977). 한국가족의 사적연구. 일지사.
 - 7) 이득재(2001).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 8)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9) 이재경(1994). 현대 가족의 반사회성. 철학과 현실. 가을. 철학문화연구소. 67-75.
 - 10) 이효재(1971). 도시인의 친족관계. 한국연구원.
 - 11) _____(1983). 가족과 사회. 경문사.
 - 12) _____(1988). “고전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슨스의 핵가족론.” 이효재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 13)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14) 장현섭(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사 연구회, 한국 근대가족의 재조명. 문학과 지성사.
 - 15) 최재석(1966).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 16) _____(1982).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 17) _____(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 18) 고든, 린다(1991). “왜 19세기 페미니스트들은 ‘출산통제’에 반대하고 20세기 페미니스트들은 찬성하는가: 페미니즘, 재생산 그리고 가족.” 배리 쏘온, 매릴린 알롬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아카데미. 57-74.
 - 19) 램, 라이나 (1991). “현대 미국의 가족과 계급.” 배리 쏘온, 매릴린 알롬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김선영, 노영주, 이승미, 이진숙 역. 한울아카데미. 220-244.
 - 20) 리프킨, 제러미(2000). 소유의 종말. 이희재 옮김. 민음사.
 - 21) 배리 쏘온(1991).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개관.” 배리 쏘온, 매릴린 알롬 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아카데미. 7-37.
 - 22) 백-게른스하임, 엘리자베트 2000).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이재원 역. 새물결.
 - 23) 백, 율리히 & 백-게른사임, 엘리자베트(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 권기돈, 배은경 역. 새물결.
 - 24) 샌델, 마이클(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김영사.
 - 25) 소콜로프, 나탈리 (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이대출판부.
 - 26) 자레스키, 엘리 (1991). “복지국가의 기원에 있어서 가족의 위치.” 배리 쏘온, 매릴린 알롬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아카데미. 245-291.
 - 27) 제인 콜리어, 미첼 제트 로살도, 실비아 야나기사코(1991). “가족은 존재하는가.” 배리 쏘온, 매릴린 알롬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권오주 외 역. 한울아카데미. 38-56.
 - 28) 하트만, 하이디(1988). “성, 계급, 정치투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가사노동의 예” 이효재 편.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까치.
 - 29) Aries, P.(1962).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Vintage.
 - 30) Blau, P. & O. Duncan(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Y.: Free Press.
 - 31)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ey Univ. of California.
 - 32) Coontz, Stephanie(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Basic Books.
 - 33) Epstein, B.L(1981). The Politics of Domesticity. Columbia Univ. Press.
 - 34) Firestone, S.(1970). The dialectics of sex. New York. Free Press.
 - 35) Goode, W.J.(1963).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Free Press.

- 36) Laslett, Barbara and Johanna Brenner (1989). "Gender and social reproduction: Histor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 37) Marx, K. & F. Engels(1968). Selected works. vol. 1. London: Lawrence & Wishart.
- 38) Mintz, Steven & Kellog, Susan(1988). Domestic revolution: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family life. Free Press.
- 39) Mitchell, J. (1971). Women's estate. New York.
- 40) Murdock, G.P.(1949). Social structure. New York: McMillan.
- 41) Parsons, Talcott and Robert Bale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 42) Ross, J.J.(1994). The virtues of the family. New York: Free Press.
- 43) Sargent, L.S. (1981). Women and revolution. Boston: South End Press.
- 44) Stone, L(1977). The Family, sex, and marriage in England 1500~1800. London: Weidenfeld & Nicholson.
- 45) Thurer, S. (1994). The myths of motherhood : How Culture Revents the Good Mother. Houghton Mifflin Co.
- 46) Zaretsky, E.(1976). Capitalism, the family and the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Row.

- 투 고 일 : 2010년 12월 10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11일